

함박에서 만난 육아동지 1회차 활동 후기

진행일정 : 6월 12일(목), 13일(금) 16시 ~ 18시

참여인원 : 4명 중 4명참여

활동 도서 : 돈이 뭐예요?, 뉴턴의 돈 교실

활동방식 : 3학년인 정우는 내용이 길어 먼저 책을 읽어보고 참여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은 전에 화폐의 기원에 대해 유치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화폐가 생기기 전 물물교환으로 필요한 물품을 얻었으며 그 후 조개가 화폐를 대신해 사용하였다는 내용에서 아는 내용이 나와 매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내용 : 활동가이드를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고 수업을 진행

독후활동 1 - 돈 교실

올바르게 돈을 버는 방법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3학년 친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돈을 버는 방법과 소비하는 방법을 나누어 붙이고 자신이 생각할 때 투자, 저금통, 은행 등의 낱말이 어디에 속할지 생각을 나누어 보고 자신에 생각에 맞게 붙여보았습니다. 저금통의 경우 저금통을 살 때 돈을 올바르게 소비한다는 친구와 저금통에 돈을 넣어 올바르게 돈을 번다는 친구로 나뉘었고, 할인의 경우 꼭 필요한 물품이 할인할 때 구매하여 돈을 번다는 친구와 그럼에도 돈을 소비하므로 둘 다 해당한다는 3학년 친구의 말에 설득된 두명의 유치원생으로 인해 의견이 나뉘기도 하였습니다.



독후활동 2 -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쓰기

돈에 대한 생각은 유치원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소금을 예전에 화폐대신 썼다고 하며 소금을 썼고, 아직 용돈을 받지 않고 있어서 생각나는 것은 주로 소비에 대해 적었습니다.(다이소, 로봇) 초등학생 친구들은 용돈을 받고 있어 집안 일을 돋거나 공부를 마치고 포인트를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며 유치원, 초등학생 친구들 모두 공통적으로 책을 읽고 앞의 독후활동에서 기부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모두 기부에 대해 썼습니다.



새롭게 배운 내용

토론에 대해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즐겁게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용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소비나 투자, 기부 등처럼 어려운 단어는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어 어린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